

행복한 만남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상담 사례집

창간호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Incheon Education & Science Research
Institute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
<http://jobinfo.ienet.re.kr>

발 간 사



21세기의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 속에서 방황하고 갈등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서 학생상담자원봉사자의 길을 걸어오신 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청소년기를 통해서 자아를 확립하고 한 사람의 독립된 인간으로 살아갈 미래를 설계합니다. 따라서 청소년기를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는 이러한 문제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의 갈등과 고민을 함께 생각하고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야말로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의 가장 소중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 23년 동안 발간해온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 운영보고서인 <만남의 터>와 사례와 미담을 실어온 <학생상담사례집>을 통합하여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 운영회지 <행복한 만남>이란 이름으로 첫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복한 만남>에는 384명의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여러분의 활동한 소감문과 상담 사례 및 봉사한 시간과 내용들이 소중하게 영글어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교육과학연구원의 소속단체로서 24년 동안 활동해온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는 2010년 9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조직 및 기능이 개편 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인천교육과학연구원 소속단체로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에게 적극적인 상담활동을 해주신 학생상담자원봉사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원고를 집필해주신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편집과 교정을 맡아 애써주신 편집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7월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 정 갑 순

발간을 축하합니다.

우리 학생상담자원봉사자들의 역동적인 상담활동을 한데 모아 <행복한 만남>라는 이름으로 출간하게 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세계미래학회 회장인 티머시 맥은 2030년이 되면 지역봉사활동이 보편화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들이 앞서 선택한 봉사자의 길은 얼마나 현명한 판단이었는지 모릅니다. 다양한 봉사활동 가운데에서도 특히 국가의 미래 동량들을 길러내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더더욱 뜻깊은 일이라 여겨집니다. 21세기는 시간 부족 사회이며, 시간관리가 곧 재테크라고 하는데 소중한 시간을 나를 위한 일보다는 남을 위한 일에 헌신하게 되니 생각에 따라서는 봉사자의 길이 멀고도 험한 길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만나면 언제나 활기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였으며 삶의 새로운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언젠가도 이야기 하였듯이 여러분들의 몸에서는 화장품 냄새가 아닌 행복 전도사로서의 짙은 향이 풍기고 있었습니다. 힘들고 지친 마음을 떨쳐 내고 항상 새로운 활력을 얻기에 최선을 다 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굳건한 무장으로 학교 현장에 파견되어 성심껏 상담에 임하신 결과 다녀가신 후에 들려오는 긍정적인 소식은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지를 유추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제 행정 조직 개편에 따라 여러분의 소속이 연구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섭섭한 마음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 연구원의 관계자뿐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속 하나하나에도 같은 생각이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며 주어진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같은 열정으로 배우고 익힌 결과를 토대로 우리 학생들이 바른 길로 매진 할 수 있도록 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모두 밝게 웃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노력은 계속 이어지리라 믿으면서 그동안 남겨 주신 예쁜 추억들을 오래오래 간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아름다운 우리 사회를 만듭니다.

2010년 7월

인천교육과학연구원기획연구부장 한 남 열

행복한 만남 - 발간을 축하합니다.



인천의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의 미래를 열어가는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지 <행복한 만남> 첫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청소년의 올바른 자기 이해 및 가치관 형성을 통한 건전한 발달 도모하고 학생선도 및 문제 행동 예방을 위한 학생상담 활동 활성화시키며 청소년 인성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참여로 「사회의 학교화 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 봉사자회원님들은 24년간을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학생상담자원봉사자님들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면 황금빛으로 물든 6월의 보리들판을 보는 것처럼 풍요롭고 은혜롭기만 합니다.

특히 지역상담실에서의 활동들을 되짚어보면 다음과 같은 일은 내내 고마운 일입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북구도서관, 인천평생학습관의 지역상담실에서 열 다섯 명의 봉사자님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초등학교 1학년인 새내기 엄마들의 집단상담을 통해 해마다 자녀교육의 반석을 닦아 준 점, 또한 부적응 학생뿐만 아니라 인천 시내의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항상 상담실을 열어놓고 개인 및 가족상담, 특별상담 등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일 등입니다.

특히 올해는 인천시내 초등학교 보건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 심성수련을 실시 하였습니다. 보건실의 기능이 비단 학생들의 외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위안을 줄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 보건교사의 심성수련은 바쁜 업무 중에 참여하신 보건교사들에게서 큰 호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올해 상담활동 중에서 또 한가지 자랑할 만한 것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버지 심성수련을 계획하여 실시하는 점입니다. 학생들에게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엄마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음을 볼 때 아버지는 예전의 아버지상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21세기가 요구하는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아버지의 역할과 자녀와의 대화방법 등을 안내하는 심성수련은 인천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의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학생상담활동의 중심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해 오신 학생상담자원봉사자님들은 스스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초교육과 보수교육을 꾸준히 받아왔으며 연찬회

및 워크숍을 통하여 새로운 진로교육의 방향 및 상담봉사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온 점에 박수를 보냅니다.

인천교육과학연구원의 소속단체로서 24년 동안 활동해온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는 2010년 9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조직 및 기능이 개편 될 예정입니다.

단위학교에서 학생들의 진로 및 인성 등 다양한 분야에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상담활동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등지로 자리매김하는 학생상담자원봉사자님들께 뜨거운 박수와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 년 동안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의 업무를 맡은 담당연구사로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많은 말을 통해서 내담자의 삶의 방향을 안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어린 공감적 경청을 통해 내담자의 마음을 풀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인간의 세치 혀는 사람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잘 다듬어진 한마디는 무한한 평온과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기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하고, 가능하면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으며 몸으로 봉사하는 삶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따스한 손길을 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마음을 모아 스스로에게 한마디 다짐해봅니다. <적게 말하고 많이 웃자.>고.

감사합니다.

2010년 7월

인천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이 영 숙

Contents

2010년 학생상담봉사자회 행복한 만남 「창간호」

- 2 발간사 /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원장 정갑순
 - 3 회장인사 / 9기 정혜숙
 - 4 발간을 축하합니다. /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한남열
 - 6 행복한 만남 - 발간을 축하합니다. /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이영숙
 - 10 2010년 학생상담자자원봉사자 활동모습 / 행사사진
-

Chapter 1 합작학교 운영사례

- 32 “내안에 너 있다!!!” / 23기 박영희
 - 35 꿈과 희망을 찾는 아이들과 함께... / 10기 양미경
 - 38 사랑으로 만나는 행복전도사 / 5기 이경자
 - 41 서로의 거울이 되어 / 상담실 운영자 12기 김효영
 - 46 아버지, 새롭게 눈을 뜨다 / 6기 지금숙
 - 49 제 가슴 속에서 바람이 막 지나가요!! / 7기 이문희
-

Chapter 2 합작학교 참여사례

- 58 개인상담 사례 / 인천여중
 - 62 엄마, 아빠 제주도 여행 보내드리고 싶은데? / 16기 류희숙
 - 67 심성수련을 다녀와서 / 보건교사 박혜숙
 - 71 삶속에서 배우는 엄마교육 / 인천석천초등학교 1학년 5반 설지인 엄마 김현숙
 - 73 초등학교 심성수련활동 소감문
 - 76 중학교 심성수련활동 소감문
 - 80 고등학교 심성수련활동 소감문
 - 85 어머니 심성수련활동 소감문
 - 88 아버지 심성수련활동 소감문 111111
 - 90 보건교사 심성수련활동 소감문
-

Chapter 3	94 학생상담자원봉사자 교육을 끝내며... / 24기 김선희
교육 참여사례	96 보수교육 심성수련활동 소감문
	98 과거의 설레임, 오늘의 열정, 미래의 행복 / 22기 박영주
	101 마지막 기차를 타고 떠나는 2박 3일의 여행 / 19기 김정미
	104 즐겁고 보람된 시간 속에서 / 5기 김혜숙
	106 아름다운 사람들 / 5기 이경자
	108 또 다른 나를 찾아서 / 15기 김순옥
Chapter 4	111 학생상담 자원봉사 10년의 감회 / 15기 한희영
봉사활동 참여사례	113 중급 지도자 과정을 마치고 / 20기 서미애
	116 상급지도 / 14기
	118 내게 심성수련은... / 19기 정순영
	120 구제역으로 수련회 취소 후 하게 된 심성수련 / 17기 장정륜
	123 내가 늘 바라보는 아이들 / 17기 임은령
	125 받는 봉사에서 나누는 봉사로 / 24기 김선미
Chapter 5	130 담임교사들 심성수련 실시(시민일보) / 마전중
학생상담자원봉사자	132 2010년 총무부 활동보고 / 12기 김경희
활동보고	139 영역별 현황(인성, 진로, 성, 약물, 리더십) / 학술부
	143 1학기 협력학교 배치표
	149 연혁

2010 학생상담자원봉사자 활동모습



▶ 기초교육



▶ 기초교육



▶ 기초교육



▶ 기초교육



▶ 기초교육을 마치고



▶ 대표자 회의



▶ 대표자 회의



▶ 대표자 회의



▶ 대표자 회의



▶ 대표자 회의



▶ 대표자 회의



▶ 임원회의



▶ 상담실 워크숍



▶ 보수교육 돕는이 연수



▶ 협력학교 방문



▶ 심성수련 활동중



▶ 학부모심성수련



▶ 보건교사 심성수련



▶ 연찬회



▶ 연찬회



▶ 연찬회



▶ 연찬회



▶ 연찬회



▶ 연찬회



▶ 연찬회



▶ 연찬회



▶ 연찬회



▶ 연찬회



▶ 연찬회



▶ 연찬회



▶ 연찬회



▶ 연찬회



▶ 연찬회



▶ 강촌 구곡폭포



▶ 강촌 구곡폭포



▶ 강촌 구곡폭포



▶ 강촌 구곡폭포



▶ 강촌 구곡폭포